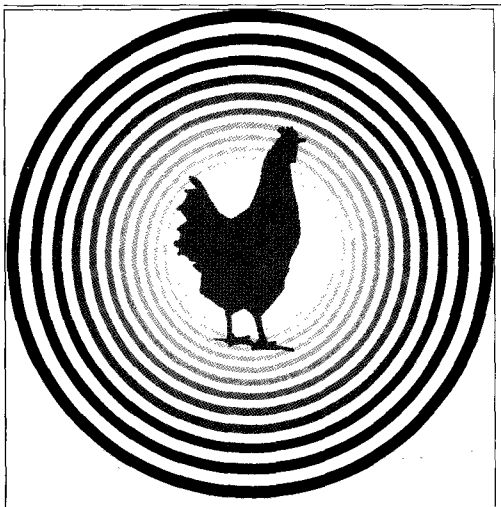

양계업계 뉴스초점

홍보부

1999종계 양허관세 물량 배정
461천수 전년 실적대비 전량 배정

1999년에 수입될 원종계와 종계에 대한 양허관세 추천물량 실수요자별 배정이 마무리되었다. 원종계는 170,450수로 육용이 96%, 산란용이 4%이며, 종계는 육용은 없으며, 산란용이 전부를 차지하고 있다. 산란용 종계 추천량은 290,550수이다.

또한 본회는 지난 해에 수입된 실적을 감안하여 시장접근물량 증량요청을 농림부에 한 상태여서 확정이 되면 539천수분에 대한 추가 배정이 진행될 예정이다.

그간의 흐름으로 볼 때 전년과 비슷한 수준에서 수입량이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계란등급간 수급불균형으로
등급간 가격차 1원대로 좁혀져

계란이 등급간 수급불균형으로 출하가격이 등급간에 1원밖에 차이가 나지 않는 현상이 나타나 채란업계에 많은 변화가 예상되고 있다.

금융위기 이후 병아리 입식량이 큰 폭의 감소를 보였고, 육성비에 대한 부담으로 고주령 환우계군이 증가하면서 중란 이하 계란 생산량은 급격히 줄어들 조짐을 보였다.

여기에 6월 한달동안 생산조절로 인한 신계의 초산이 중단되어 잔알 수급불균형은 더욱 심화되었다. 앞으로 신계군이 산란에 가담하는 양이 증가하여 다소 해소는 되겠으나 급격한 변화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 등급간 가격차가 좁혀져 가급적 산란수는 유지하되 난중은 낮추는 사양관리가 요망된다.

백세미 생산 부화장 3개소 미등록 부화장으로 고발조치

건전한 육계 병아리 생산의 유통질서를 깨뜨리고 생산 흐름을 저해할 뿐 아니라 질병 전파의 원인제공자로 규정하여 종계업계에서 강력하게 생산중단 조치를 해달라는 요구가 거세지고 있는 가운데 이미 진정서와 청원서를 관계당국에 제출한 상태에 있다. 이와 관련하여 아산, 무안, 익산에 있는 미등록 부화장 3개소를 고발 조치하였으며, 차제에 삼계탕용 육계도계통이 확실한 전용육계로 유도해 나가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 줄 것을 요구하여 향후 농림부의 처리결과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1998년도 닭고기 수입량 11,728톤 국내 생산량의 4% 차지

지난 해의 닭고기 수입량은 총 11,728톤이 수입된 것으로 집계되어 국내 생산량의 4% 이상을 잠식한 것으로 나타났다. 환율이 높았음에도 불구하고 예상보다 많은 양이 수입된 것은 국내산의 가격 상승과 물량 확보의 용이성 때문인 것으로 나타났다. 환율이 최저치를 기록했던 12월의 수입량이 20%를 차지하여 향후 닭고기 수입은 국내 가격과 환율변동에 따라 물량이 크게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수입품은 대개 국내산 냉동육에 비해 kg당 500원 정도 낮게 거래가 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국내산 냉동육은 냉장육에 비해 도매가격 기준 kg당 1천원선의 가격차를 유지하고 있다.

금년의 경우에는 연초부터 병아리값의 강세로 상반기 육계가격이 상승될 것이라는 기대심리가 작용하여 수입량은 전년보다 한층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사료관리법시행규칙 개정 보조사료에 아미노산제,비타민제등 추가

농림부가 지난 해 7월 입법예고 하여 각계의 의견을 수렴하여 마련된 사료관리법시행규칙과 동물용의약품등 취급규칙에 대한 개정령이 지난 1월 19일에 최종 확정되어 공포되었다. 이번에 공포된 개정령은 당초 입법예고한 개정령(안)의 내용을 거의 수용하고 있는데, 이로써 동물약품 업계와 사료업계간의 첨예한 대립이 일단락 되었다. 개정 내용을 보면 단미사료제조업자, 보조사료제조업자 및 수입업자는 단미사료 또는 보조사료에 추가되는 광물질첨가물, 항산화제, 항곰팡이제, 효소제, 생균제, 아미노산제 또는 비타민제를 2000년 12월 31일까지는 제조 또는 수입하여 판매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1999조란 시장접근물량 확정 식품가공용 15,179톤

농림부는 1999년도에 시장접근 물량으로 수입되는 식품가공용 조란 수입량을 총 15,179톤으로 확정발표하였다. 이 물량에 대해서는 실수요자의 신청순에 따라 추천대행기관인 대한양계협회의 추천을 받으면 30%의 관세로 수입이 되며, 추천을 받지 안거나 초과분은 44%의 관세가 적용되는데 지난 1998년의 경우에는 수입추천 실적이 한건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식품가공용은 껍질이 없는 전란액을 냉동하여 사용하기에 수입대체 가능성이 높다. 양계